

## '88년의 國內外 經濟環境

— 七高環境의 슬기로운 超克을 —



宋 基 澈  
(高大 教授 · 經博)

### 88년의 뜻

어느 해를 놓고 볼 때에 뜻이 없는 해가 있을 수 없다. 그런 뜻으로 볼 때에 모든 해가 모두 각각 나름대로 뜻이 있는 重要한 해가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88년은 雙8년이래서 그런지 모르나 우리 大韓民國의 앞날을 내다 봄에 있어서 88년은 다른 해와는 달리 정말로 아주 重要한 決定의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그것은 國內外政治에 있어서 그러하고 社會에 있어서와 技術에 있어서도 그러하며 특히 經濟에 그러하리라 생각된다. 우선 國際政治의 擘美國에선 大統領選舉가 있어서 우리에게 대한 經濟壓力이 加重되어 가고 있으며 그것이 어떻게 마무리 될 것인지 깊은 關心을 갖고 지켜 보아야 한다. 日本에선 竹下政府가 樹立되었고 中共 역시 改良主義의 擴大 여부가 판가름 나리라 보여진다. 國內政治의 擘 볼 때엔 87년의 6, 29 民主化 宣

言에 이어 國民投票 大統領選舉에 이어 88년의 大統領就任 國會議員選舉 地方議員選舉가 이루어 지는 사이에 單任으로 끝날 뿐만 아니라 平和的으로 政權이 交替되고 後遺症이 없어서 政治民主化가 뿌리를 박기 시작하느냐 與否가 판가름 나기도 하는 해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社會的으로 볼 때엔 88올림픽이 치러지게 되며 3월부터 勞使協約이 이루어지는 해이기도 하다. 88올림픽은 世界의 大祝典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國家들이 參加해서 秩序, 整然하게 不祥事없이 平和的으로 치루어 져야 하며 그러면서도 뒤에 後遺症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安保的으로도 88올림픽의 保安이란 見地에서도 重要한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問題는 88년의 經濟라 할 수 있다. 86년을 轉換點으로 해서 黑字時代에 轉入했는데 87년에 이어서 88년에도 우리 經濟가 계속 黑字經濟의 基盤을 굳혀 先進化 高度化하여 先進開發途上國家가 아니라 真正한 뜻의 先進國隊列에 끼이게 되는 한 계기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하여간 88년에 있어서 우리는 政治로 民主化하고 經濟로 高度化하는 日本型으로 指向해야지 政治도 제대로 잘되고 있지 않으며 經濟도 형편이 없는 필리핀 내지는 中南美 스타일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은 더 말할 必要도 없는 것이다. 더군다나 그럴리가 없겠지만 第2의 越南化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한편 올림픽도 大會가 멋지게 事故없이 平和的으로 치뤄지고 經濟的으로도 跳躍의 한 契機가 된 東京올림픽과 같이 되어야지, 검은 九月團에 의해서 피로 물들어진 淸晨 올림픽이나

大會도 勞使紛糾과 學園데모 등으로 社會가 大混亂에 빠져 戒嚴令이 宣布되고 250餘名의 犠牲下에 치루어 졌을 뿐만 아니라 原油를 위시해서 莫大한 資源을 갖고 있으면서 올림픽이 큰 原因의 모두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한 原因이 되어 1,000億弗 以上の 外債가 있어서 三大外債國의 하나로 轉落한 멕시코 올림픽의 前撤을 밟아서는 아니 된다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88년 戊辰年은 龍의 해가 뜻하는 바와 같이 아시아의 네마리의 龍중 如意珠를 얻어 우리가 昇天을 先進國으로 가느냐, 그러지 못 해서 地上에 주저 앉겨 後進國에 머므느냐의 判가름이 되는 重要한 分岐인 한해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즉 政治, 社會, 經濟, 安保의 모든 面에서 先進開途上國의 一色인 우리 나라가 民主化, 先進化, 高度化를 이룩하여 先進國으로서 政治民主化, 社會先進化, 意識成熟化, 經濟高度化를 누릴 수 있느냐가 判가름 나는 한 해로 생각이 된다.

## 좋았던 '87 韓國經濟

사람은 自己의 눈으로 世上을 내다 보게 마련이다. 이 自己의 눈은 自己의 年齡, 人生經驗 등 여러가지에 따르는 것이 一般의이지만, 특히 自己가 從事하는 職業의 領域이란 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酒類人은 酒類란 眼目에서 世上을 내다 보는 경우 많고, 그렇지 않으면 眞正한 뜻의 酒類人이라 할 수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 敎職에 있는 사람은 世上萬事를 點數를 매겨서 보려는 性向이 많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너는 우리 經濟를 과연 몇 點으로 보고 있느냐로서 부터 우리 經濟를 評價해 보아야 하겠다. 우리 經濟는 最近 몇 年사이 특히 86年 이후에 飛躍의인 發展을 거듭하여 많은 經濟陽地가 돌 보이고 있는 것이 現實이기도 하지만 또한 아직도 經濟陰地가 적지 않아서 앞으로 풀

어야 할 經濟課題가 너무 나도 많기 때문에 아직은 B學點정도 밖에 주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筆者의 見解이다. 물론 이러한 評點에 대해서 너무 厚하다고 酷評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며 또 너무나 薄하다고 嫌嫌히 생각하는 側도 없지 않다. 그러나 評點을 하는 사람은 나름대로 評價眼目이 있어서 그에 立脚하는 것이기 때문에 不可避하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6年의 우리 經濟에 대해서는 A學點을 주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우리 經濟의 最大課題인 國際收支에 현저한 改善을 가져와 慢性赤字에서 黑字로 돌아서 40余億달러의 黑字를 냈으니 이것은 壇君할아버지 이후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높은 評點을 주지 않을 수 없다. 그 뿐만 아니라 33%의 높은 國內貯蓄率로 投資財源을 모두 充當시키는 投資財源自立元年을 이루었고, 連續 6年의 大豊, 漢江開發 第1期 工事의 完工, 第12位로의 貿易國家浮上, 1人當 國民所得 2千3百弗 등등의 經濟業績으로 보아 그리 높게 評價할 수 있다고 본다.

87년도 86년에 이어 우리 經濟는 계속 A學點을 줄 수 있는 또 좋은 한해의 經濟가 되었다. 民主化要求를 中心으로 한 學生데모가 誘發시킨 政治不安, 8月서 9월에 이르는 사이에 全國에서 거의 모든 企業에 擴大된 過熱 勞使紛糾, 類例를 볼 수 없었던 大洪水, 擴大一路의 輸出障壁과 輸入自由化壓力 등과 같은 劣惡의 環境에도 불구하고 대견하게 86年 보다도 2倍에 가까운 1百億달러에 가까운 國際收支黑字를 이루고 同額에 가까운 外債를 償還하기도 했다. 또 우리의 總貯蓄率도 36% 가까이 이르렀으며, 大洪水에도 불구하고 豊作을 그외 4百70億달러의 輸出과 1人當 國民所得이 2千8百달러에 까지 이르는 大飛躍을 해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經濟好況과 겹쳐져 憂慮했었던 政治不安도 일단 單任으로 平和的으로 政權交替가 이루어져 第六共和國의 出帆을 보게끔 되어 있어서

87년의 우리 政治, 經濟, 社會는 많은 憂慮속에서도 좋았던 한 해 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

## 88 世界經濟

지금 世界經濟는 과히 좋은 局面에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지난 87年 10월에 發生한 汎世界的인 證券市場波動으로 各國의 株價가 暴落, 이에 따른 資産減少效果와 美國의 貿易赤字와 財政赤字의 削減轉換 등으로 表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世界經濟의 成長勢는 若干 鈍化될 것으로 展望되고 있다.

美國의 경우 證市波動에 따른 政府의 財政支出抑制는 전체 美國經濟의 成長率을 1~1.5% 下降시킬 것으로 보여지며 日本은 圓貨切上 및 國內證市 變動에도 불구하고 內需擴大財源에 힘입어 87年과 비슷한 3%水準의 成長勢를 기록할 展望이다.

〈表 1〉 世界經濟展望

年度別 國家別	'85	'86	'87 (展望)	'88 (展望)
世界全體	3.1	2.9	2.7	2.5
先進國	3.2	2.7	2.5	2.4
(美國)	(3.0)	(2.9)	(2.6)	(2.4)
(日本)	(4.5)	(2.5)	(3.2)	(3.0)
(유럽)	(2.6)	(2.5)	(2.2)	(2.2)
開途國	2.4	2.4	2.2	3.5
(中東)	(△2.9)	(0.8)	(△0.5)	(3.9)
(南美)	(3.8)	(4.0)	(1.4)	(2.9)
(太平洋沿岸國)	(2.3)	(5.8)	(6.8)	(6.1)

資料: WEFA, '87. 10. 對外經濟與件展望  
經濟企劃院, 87. 11. 19

유럽은 緊縮政策으로 國內需要가 不振 한데다가 美國景氣의 鈍化 影響으로 2% 内外의 低成長을 보일 것이라고 한다.

한편 開途國의 경우 産油國들은 油價에 따른 經濟成長勢가 左右될 것이며, 其他 開途國들은 韓國을 包含해서 先進國들의 景氣鈍化 影響으로 成長勢가 다소 鈍化될 것으로 보여진다.

지금 世界經濟의 展望을 全般的으로 보면 '87年의 世界全體 經濟成長이 2.7%임에 반하여 '88년에는 0.2%가 鈍화된 2.5% 成長이 豫想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先進國의 87년의 2.5%에서 88년에는 0.1%가 떨어진 2.4%로 開途國은 87년의 2.2%에서 88년에는 1.3% 上昇한 3.5%로 보고 있으나 그리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많은 疑問을 提起시켜 주고 있다.

그 內容을 좀 더 자세히 살펴 보면 先進國중 美國이 87年 2.6%에서 0.2%가 떨어진 2.4%, 日本도 87년의 3.2%에서 88년에는 0.2% 떨어진 3.0% 유럽은 87년의 2.2%에서 87년에도 똑 같은 2.2%로 豫測하고 있다.

한편 開途國중 中東은 87년의 마이너스 0.5%에서 88년에는 原油價가 若干 올라 3.9%로 急上昇할 것으로 보고 있으나 87年 OPEC總會에서 原油價를 88年 上半期까지 배럴당 18달러로 公示價格을 결정했기 때문에 油價回復展望을 바탕으로 한 3.9% 成長이란 期待하기 어려운 豫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南美가 87년의 1.4%에서 88년에는 1.5%가 늘어난 2.9%, 太平洋沿岸國家는 87년의 6.8%에서 0.7%가 줄어든 6.1%의 成長勢를 豫測하고 있다.

한편 世界交易의 展望을 보면 表2와 같다. 이에서 보면 美國달러貨의 弱勢現象과 財政赤字削減計劃은 美國을 비롯한 先進各國의 交易量 增加推勢를 鈍化시킬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世界全體로 보아 87년의 4% 交易量增加가 88년에도 4%增加 内外로 되리라 豫想하고 있다.

先進國 중 美國은 87년의 2.0%에서 88년에는 1.8%로 0.2%가 減少할 것으로 豫測하고 있다. 한편 日本은 87년의 6.4%에서 88년의 6.5%로

유럽도 87년의 5.3%에서 88년에는 5.0%로 내다 보고 있는데, 日本과 西獨에 의한 內需擴大政策이 交易量 增大에 多少 寄與할 것이지만 先進國의 交易量은 87년의 4.1% 增加에서 88년에는 1%가 떨어진 3.1%로 經濟企劃院은 내다 보고 있다.

한편 開途國을 보면 88년에는 5.6%의 增加를 豫測하고 있다.

〈表2〉 世界交易展望

年度別 地域別	'86	'87 展望	'88(展望)			
			IMF	DRI	NIESR	企劃院
世界全體	4.9	4.0	4.5	4.0	3.8	4%内外
先進國	8.4	4.1	3.8	3.6	—	3.1
(美國)	(10.6)	(2.0)	(2.7)	(1.5)	(△3.9)	(1.8)
(日本)	(12.5)	(6.0)	(6.0)	(3.6)	(11.3)	(6.5)
(유럽)	(6.8)	(5.3)	(4.3)	(4.5)	(—)	(5.0)
開途國	△2.5	1.7	5.6	—	—	5.6
(産油國)	(△3.6)	(△0.5)	(3.0)	(—)	(—)	(3.0)

資料：對外經濟與件展望, 經濟企劃院, '87. 11. 19

그리고 世界經濟에 衝激을 주고 있는 變數의 하나인 主要換率展望을 보면 表3과 같다. 이에서 보면 日本 圓貨가 88年 1月에는 美國 달러貨당 1百33圓에서 1百33圓60錢으로 되어 있는데 이미 이 豫測이 틀려서 1月 4日 東京外換市場에서 1百21圓65錢 이였었는데 그 다음 날인 1月 5日에는 1百24圓80錢까지 反騰했다. 한편 1月 6日에는 3圓40錢이 오른 1百28圓20錢에 이어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1百31圓台에 이르렀다가 1百20圓台로 다시 反落하고 있다. 이것은 美·英·佛·西獨·캐나다·伊太利 등 先進 7個國이 87年 12月 23日 換率安定을 위한 共同聲明을 作成할 때 달러貨 時勢의 下限線을 달러당 1百25圓~1百30圓線까지 維持하도록 合意했으며 이를 지키기 위해서 各國의 外換市場介入을 強化할 것을 約束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表3〉 主要換率展望

年度別 通貨別	'87	'88		
		11月	1月	4月
日本 円貨	136.0	133.6	132.3	129.8
西獨 DM	1,705	1,670	1,643	1,588
프랑스 프랑	5,575	5,598	5,654	5,543
英國 파운드	1,748	1,779	1,792	1,820

(註) 파운드 對比달러

資料：WEFA, '87. 11. KDI, '88年世界經濟展望

先進 7個國은 世界主要外換市場 뿐만 아니라 시드니 등 小規模 外換市場에 까지 介入, 換率安定政策을 지속키로 했으며, 이와 같은 合意에 따라 日本銀行 뿐만 아니라 뉴욕 聯邦銀行, 西獨 聯邦銀行 등이 一齊히 市場에 介入함으로써 달러貨 安定을 새로운 局面에 들어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反轉은 一時的 現象으로서 美國의 國際收支赤字와 財政赤字가 削減될 뿐만 아니라 美國經濟와 美國企業의 體質이 強化되지 않는 한 本質의인 달러貨 安定은 不可能한 것으로, 따라서 달러貨 價格의 反轉現象은 一時的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모든 經濟專門家들의 見解로서 자칫하면 88년에 1百20圓台가 깨져서 1百10圓台로 들어 갈지도 모르며 90年代初에는 100圓대에 까지도 될지 모른다는 見解도 있음에 注目해야 할 것이다.

한편 國際金利를 보면 株價暴落을 계기로 그간 87年 下半期 이후 10月 中旬까지 全般的인 上昇勢를 보이던 國際金利는 下落 返轉하는 推勢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 美國金利를 포함한 國際金利는 金融市場에서 衝激을 鎮靜시키기 위해서 下落 基調를 보일 수 밖에 없을 것이지만, 88年 上半期이후에는 反轉할 可能性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88年의 國際金利水準은 87年과 비슷한 水準을 維持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리가 깊은 關心을 기울여야 할 國際原

資材動向, 특히 原油價格動向을 보면 그의 油價動向과 需給展望을 보면 各各 表4와 表5와 같다.

87年の 株價下落과 연 이은 달러貨 暴落은 油價의 上昇壓力으로 作用할 것으로 豫想되었으나 需給이 비교적 安定되어 있어서 배럴당 18달러 内外의 水準을 維持하였다.

〈表 4〉 油價展望 (單位: 달러 / 배럴)

年度別 機關別	'86	'87(展望)	'88(展望)
WEFA(87.10) <sup>1)</sup>	14.0	16.7	17.1
DRI (87. 9) <sup>2)</sup>	14.9	17.6	18.2
IMF (87. 9)	13.3	17.0	17.6

(註) 1) 사우디輕油基準

2) 產油國平均輸出單位

資料: 對外經濟與件展望, 經濟企業院, 87. 11. 19

〈表 5〉 原油需給展望 (單位: 百萬배럴 / 日)

年度別 內譯別	'87(展望)	'88(展望)	增減(%)
原油消費	47.3	47.9	1.2
原油供給	47.5	47.7	0.4
(OPEC)	(19.2)	(19.1)	(0.0)
(非OPEC)	(28.4)	(28.6)	(0.7)
右庫變動	(1.2)	△0.2	—

(註) 天然Gas包含

資料: 對外經濟與件變化, 經濟企劃院, 87. 11. 19

88年중 平均油價는 다소의 引上 要因이 있었으나, 石油輸出機構(OPEC) 13個會員國들 中 이라크를 除外한 12個國 石油相들이 88年 上半期중 OPEC 原油公示價格과 產油上限線을 87年과 똑같이 凍結키로 最終 確定했었다. 즉 公示價格은 배럴당 18달러, 產油上限線은 하루 1千5百6만배럴(이라크 除外)로 確定했다.

이번 總會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등

아랍걸프國들은 公示價格을 88年末까지 凍結할 것을 主張했으나 이란이 20달러 이상으로 올릴 것을 強力히 主張하다 價格을 現水準으로 凍結 하되 適用期限을 88年 上半期중으로 하자는 案件을 提示, 이를 採擇하게 되었다.

한편 이라크는 이라크의 88年度 產油쿼터를 이란과 똑 같은 2百36萬5千배럴로 해 줄 것을 主張하다 다른 會員國들이 87年과 같은 1百54萬 배럴로 할 것을 要求하자 代表團을 撤收시켰다. 이 總會이후 原油價는 18달러 以下로 下落했고, 世界景氣의 鈍化 豫想으로 消費需要가 87年 水準에 그칠 것이며, 供給도 87年 水準으로 유지 될 것으로 보여 87年과 비슷한 水準인 배럴당 18~19달러 선에서 安定될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表 6〉 主要原資材價格展望 (單位: %, 달러 / 배럴)

年度別 品目制	1984	1985	1986	1987	1988
農 產 物	2.6	△12.4	4.7	△5.0	5.2
(穀 物)	△6.2	△14.1	△7.5	△13.8	1.4
(其 他)	4.4	△12.1	6.9	△3.6	5.7
林 產 物	1.2	△9.9	12.3	10.0	6.5
鑛 產 物	△2.1	△1.1	△20.1	14.0	5.0
原油價格	28.45	27.75	14.00	16.70	17.10

(註) 1) 사우디輕質油 市場價格

資料: WEFA, World Economic Outlook, 1978, 10

KDI, 88年 世界經濟展望

또 其他의 原資材價格展望을 보면 表6과 같다. 87年 4月 이후 달러貨 弱勢로 인한 實物投機와 非鐵金屬을 비롯한 一部 品目的 消費增加로 急速한 上昇勢를 보였던 國際原資材는 87年 下半期에는 緩慢한 上昇勢에 머물고 있다.

그런데 88年중 國際原資材價格은 強勢基調는

表6에서와 같이 維持할 것이지만 世界景氣의不振에 따른 需要不振으로 上昇勢는 인플레이션을 다소 上廻하는 水準인 5~7%에 머물 것이 아닌가 하는 展望을 하게 된다.

## 88年の 國內經濟展望

韓國經濟는 表7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87年度 國民總生産은 87年 經常價格으로 1千2百7億달러(96조 9천9백 59억원)로 86年보다 12.2%의 實質成長을 이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87年 GNP成長率은 86年の 12.5%에 비해서는 0.3%가

낮지만, 80年代에 들어서는 86年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高度成長이다. GNP에서 外債利子支給 등 所得이 海外로 流出된 部門을 除外한 國內總生産(GDP)로 11.2%의 成長率을 나타냈다. 지난 7, 8月の 颱風 및 水害와 勞使紛糾의 회오리 속에서 87年 韓國經濟가 이같이 高速成長을 한 것은 輸出好調에 따른 製造業의 높은 成長과 設備投資가 活潑했기 때문이다. 部內別 成長內容을 보면 製造業이 重化學工業製品을 中心으로 16%의 높은 增加率을 보여 全體 成長을 主導했다.

電氣, 都小賣, 運送業 등도 製造業의 높은 成長에 힘입어 13.5%의 成長率을 나타냈으나 農

〈表7〉

87年主要經濟指標推移

內譯別	年度別	單位	85年	86年	87年
國內總生産(GDP)		億弗	867	981	1,207
(增加率)		(0.10)	(5.4)	(11.9)	(11.2)
國民總生産(GNP)		億弗	837	951	1,180
(增加率)		(%)	(5.4)	(12.5)	(12.2)
一人當 GNP		弗	2,047	2,296	2,813
産業生産性增加率		(%)	5.9	12.3	11.5
農林漁業增加率		%	4.8	4.4	△ 0.6
鑛工業增加率		%	3.9	16.8	15.4
(製造業增加率)		%	(3.8)	(17.4)	(16.0)
建設,電氣,가스,水道增加率		%	8.2	10.5	13.5
서비스業		%	7.5	11.8	11.8
非營理서비스業		%	3.4	4.4	4.2
輸出增加率		%	2.1	26.6	24.0
輸入增加率		%	△1.7	18.6	19.9
消費率		%	71.4	67.2	64.2
民間		%	60.6	56.6	53.4
政府		%	10.8	10.6	10.8
國民貯蓄率		%	28.6	32.8	35.8
國內貯蓄率		%	31.1	30.2	29.3
海外投資率		%	△3.1	2.7	1.6
GNP디플레이터 上昇率		%	4.1	2.3	3.1

林·漁業은 颱風 및 水害로 인한 쌀, 고추 등의 栽培作物의 減産으로 80年 이후 처음으로 0.6%의 마이너스 成長을 기록했다.

또 固定投資는 86年 보다 18.9%가 늘어난 機械設備投資의 活潑로 13.5%가 늘고, 商品輸出은 電氣 電子機器 自動車 등 輸送用 機器 등의 輸出好調에 힘입어 23.8%로 增加했고, 輸入은 金屬工作機械 등을 中心으로 20.3% 늘어난데 그쳤다. 消費는 民間消費가 乘用車, VTR 音響機器 등 耐久消費財를 中心으로 7.2% 增加, 86年 보다 다소 늘어났으나 安定水準을 보였으며 國民貯蓄率은 所得增加에 비해 消費가 安定勢를 보여 86年의 32.8%에서 35.8%로 높아져 史上 最高水準을 기록했다.

86年에 이은 87年의 좋은 經濟를 이어 85年의 우리 經濟는 87年만은 좀 못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높은 經濟를 이루어 그 內容도 괜찮으리

라는 豫測이 一般的이다. 지금 여러 機關의 豫測이 있으나 韓國開發院(KDI)의 豫측을 表8에서 보면 88年 중에도 우리 나라 經濟는 극도의 政治不安이나 原資材波動, 勞使紛糾 그리고 貿易摩擦의 激化등 狀況이 急變하지 않는 한 87年과 비슷한 水準의 國際收支黑字를 기록할 것이며 그 事情이 惡化되면 그만큼 國際收支黑字가 減少할 것이지만 여러 與件으로 보아 상당한 水準이 維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어서 보면 88年중 激甚한 勞使紛糾와 극단적인 貿易摩擦만 없다면 우리 經濟는 輸出增加勢의 鈍化에도 불구하고 民間消費需要의 增大와 政府의 公共支出增大에 힘 입어 實質 GNP基準 8~9%의 成長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輸出은 對內外與件의 惡化로 增加勢가 鈍化될 展望이지만 輸入은 積極的인 內需擴大와 市場開放 其他 原料切上 등의 要因으로 상당히 增加할

(表 8)

## '88 國內 經濟 展望

(單位: 億弗, %)

內 譯	年度別 '86	'87			'88
		上 年	下 年	年 間	
實 質 GNP 成 長	12.5	15.3	11.3	13.0	8.5
總 消 費	6.7	7.5	8.1	7.8	7.6
國 定 投 資	15.0	14.7	13.0	13.8	10.8
商 品 輸 出	26.3	26.1	20.4	23.0	16.6
商 品 輸 入	19.7	21.5	19.0	20.2	15.6
經 常 收 支	46.2	41.5	53.5	95.0	65.0
貿 易 收 支	42.1	29.8	39.2	69.0	35.0
(輸 出)	339.1	206.8	239.2	450.0	522.0
(輸 入)	297.1	177.0	200.0	381.0	487.0
貿 易 外 純 移 轉 收 支	4.1	11.7	14.3	26.0	30.0
GNP 디플레이터	△ 2.2	1.8	3.8	2.8	4.7
都 賣 物 價	△ 2.2	△ 0.6	1.4	0.4	3.5
消 費 者 物 價	2.3	2.1	3.8	3.0	5.0

[註] 物價上昇率: 昨年 月日對比

資料: KDI '88年度 經濟展望과 轉換期의 經濟運用

展望이다. 이에 따라 貿易收支는 87年 보다 相對적으로 줄어들 展望이지만 貿易外 및 移轉收支의 增大로 88年중 약 65億달러에 달할 展望이라고도 한다.

한편 物價는 上昇勢가 지속될 것이 豫想되며 이것은 賃金의 上昇과 內需景氣의 好調, 그리고 輸入物價의 上昇傾向으로 國內物價는 87년에 비해 상당한 上昇勢를 보일 展望이다.

政治 社會뿐만 아니라 88年의 우리 經濟도 急激한 環境變化와 함께 大轉換의 契機가 될 것은 分明하다. 우선 2月 25일에 盧大統領이 就任하고 第6共和國이 出帆한다. 執權政黨이 바뀐것도 아니고 「安定속의 成長」이란 基本基調가 變更될 것으로 보지 않지만 政策方向에는 많은 變化가 있을 것으로 豫想된다.

大統領選舉期間中の 各種 事業公約 특히 地域間 均衡發展을 위한 建設事業需要가 增大되고, 賃金, 農産物價格, 서비스料金 利害階層의 所得補償的 要求도 高개를 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봄철의 賃金引上交渉이 87年 여름의 勞使摩擦과 葛藤의 表出을 피하면서 어떻게 圓滑하게 妥協할 수 있는냐의 與否가 우리 經濟의 앞날에 重大한 関건이 된다. 또 國會議員選舉와 地方自治制實施 '88 서울올림픽開催는 地域經濟의 內需景氣活力에 重要한 影響을 미칠 變數로 豫測된다.

한편 經濟적으로도 2年째 계속된 國際收支의 大幅的인 黑字가 元貨切上, 市場開放壓力, 輸出障壁加重 등 通商摩擦을 激化시킬 展望으로 이에 대해 適切한 對應이 要請된다. 選舉와 輸出好調에 따른 通貨膨脹으로 市中에 돈이 넘쳐 物價도 不安한 狀況이다.

87年 가을 世界證市의 大暴落이후 換率 金利變動에 따른 不安이 높아지고 美國經濟를 비롯 貿易展望에도 不確實性이 높다. 88年 가을 大統領選舉를 치르는 美國도 國內景氣浮揚을 위해 金利引下등 政府努力을 기울 일 展望이고 따라서 貿易 財政의 兩赤字를 短期間內에 縮小하기 어

려운 狀況에서 美國은 결국 달러弱勢를 持續하고 保護貿易主義로 기울 展望이 크다. 이와 함께 유럽 共同體등도 特惠關稅(GSP)廢止등 對韓輸入規制를 急速히 強化하고 있으며, 中共등 아시아後發開發國의 底賃에 의한 追擊도 激化되는 狀況이다.

이와 같은 狀況속에서 88年의 우리 經濟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87年과 같은 異例的인 成長이나 輸出伸張은 期待하기 어렵다. 政府展望에 따르면 88年度 經濟成長은 8% 内外, 經常收支 黑字幅은 60億달러, 物價는 都賣 2~3% 消費者物價 4~5% 水準에서 安定시킨다는 것이다.

輸出環境의 惡化에 對備하면서 8%의 成長을 계속시키기 위해서 住宅建設, 國土開發 등 積極的인 內需振作을 통해 景氣의 活力을 維持하고 有望製造業 등을 위주로 해서 設備投資擴大를 支援하기로 되어 있다. 즉 輸出 第一主義에서 輸出과 內需가 均衡을 이루는 均衡成長路線으로 旋回한다는 것이다. 또 한가지는 國際收支黑字幅의 適正管理를 위해서는 海外旅行과 外換管理規制가 大幅 緩和되어 가고 있다. 즉 對外貿易의 自由化와 開放化가 本格化하여 海外旅行의 自由化가 바로 그 一例라 할 수 있다.

특히 85년에 43億달러, 86년에 73億 달러에 이어 87년에도 100億 달러가 가까운 對美黑字를 縮小하고 通商摩擦을 緩和하기 위해서 貿易摩擦의 核心인 貿易黑字의 減縮이 不可避하다. 88年은 우리 元貨의 切上壓力이 더해지고, 7百원台, 심지어는 6百80원台 소리 까지도 나오고 있다. 그리 大幅的인 切上이 되지 않기를 기대하지만 一般的으로는 720원線까지를 혹은 700원線까지 지켜저도 成功이 아닌가 하는 말도 나오고 있다. 그리고 輸出支援體制도 大幅 減縮할 수밖에 없다고 보아야 한다.

成長率 8%는 失業率을 87年의 3.3%, 보다 높은 3.7%(失業人口 63萬8千名, 그 중의 66.5%가 高卒出身以上の 高學歷人口)로 높아질 展望이다.



勞使紛糾가 再燃되고 이에 따라 企業의 投資心理萎縮되면서 投資內容도 工場自動化 등 動力化로 쏠리면 成長率은 7% 水準까지 낮아지고 雇傭吸收力도 낮아져 失業은 더욱 惡化되고 政治不安 社會不安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憂慮도 없지 않다.

올림픽에 따른 觀光收入增加, 外債利子減少 등으로 貿易收支黑字가 45億달러로 줄더라도 經常收支赤字는 60億달러의 黑字를 예상하고 있다. 政府는 88年에도 40億달러의 外債를 줄여 GNP의 20% 水準인 3百15億달러 線 純外債는 1百70億달러 線으로 維持한다는 것이다.

걱정되는 것의 하나는 物價不安要因이다. 이에 87年에 消費者 物價가 5.8%나 올라 근래에는 보기도 못한 物價上昇率인데 88年에도 選舉로 돈이 많이 풀려나간데다가 지난 여름의 勞使紛糾에 따라 賃金上昇影響이 88年 봄의 勞使協商에서 한자리 數나 혹은 두자리 數에 따라 價格上昇要因으로 轉嫁될 危險성이 큰데다 一部 國際原資材價도 오르고 있으며 各界各層의 所得補償的要求가 爆發해서 價格에 轉嫁될 憂慮가 없지 않다.

새 政府가 物價安定의 意志만 있다면 黑字餘裕로 不足物資를 國內需給의 安定을 기할 수 있으며 元貨切上이 적어도 輸入物價에는 安定효과를 가져 올 수 있기도 하다. 하여간 政府는 88年 物價를 都賣 2~3%, 消費者物價 4~5%로 잡으려 하고 있으나 消費者物價는 5~9%線內에서 머물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

하여간 88年은 高政治不安, 高輸出障壁, 高輸入自由化壓力, 高元貨切上, 高圓貨切上, 高國際原資材價格, 高賃金壓力 등 七高環境이란 國內外的으로 어려운 環境下에 놓여 있다. 이런 環境속에서도 지난 2年의 우리 經濟는 좋았고 앞으로 3年 내지 5年 우리가 이 어려운 環境에 슬기롭게 對應하는나에 따라 政治民主化와 經濟高度化, 社會性熟化를 이룰 수 있는나에 판가름이 나는 것으로 보여진다.

酒類産業은 所得增大와 결들여 高級化하면서 꾸준한 成長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消費者의 嗜好變化와 自由化壓力 그리고 國際原資材價動向과 결들여 原料動向에 깊은 關心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나라사랑 따로없다 간첩신고 나라사랑